

일 주 문

월주스님, 제1회 사회통합 민세상 수상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1월 30일 항일운동가 민세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1회 민세상을 수상했다. (031)665-3365

만공 선사 64주기 열반다례제 예산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은 11월 25일 정혜사에서 만공 선사 64주기 열반다례제를 봉행했다.

정대 스님 7주기 추모다례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11월 30일 안양 삼막사에서 정대 스님 7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12월 13일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되는 금강산림법회에 법사로 나선다.

월암 스님 문경아카데미 강연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경북 문경시가 주최하는 문경아카데미 강좌에서 '생활관 선(禪), 행복선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연한다.

광진노인복지관, 저소득 김장 지원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12월 2일 자양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연화원 2010수화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12월 12일 잠실 교동회관에서 2010 수화 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

불교진흥원, 로터스월드 성금 전달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2월 1일 캄보디아 빈곤 초등학생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로터스 월드에 전달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세미나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가연대 리더스 포럼 박창범 고등과학원 물리학과 교수는 12월 7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천문학을 강연한다.

“범패 전수 위해 문화예술관 건립” 쌍계사 신임 주지 성 조 스님 “다솔사 분쟁 올바르게 해결”

“국내 최초 범패 시발지인 쌍계사를 범패 등 불교음악 전문 도량으로 육성하겠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하동 쌍계사 주지에 성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성조 스님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본사주지는 말사주지와는 다르게 다방면으로 할 일이 참 많다. 성조 스님은 그동안 말사 소임을 성실히 살아왔고 쌍계사 조실스님을 잘 모셔온 만큼 교구 대중들과 화합해서 원용 살림을 꾸려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다와 범패를 특성화해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기도도량은 쌍계사를 기도와 휴식을 위한 일반 대중에게 개방해 대중 포교와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돕겠다는 청사진이다. 포교도량은 사계절 쌍계사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표부터 불거리·알거리를 전달하고, 지역불교대학을 개설해 포교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스님은 “쌍계사는 교통·지리적 어려움이 많아 포교 등 사찰 운영에 어

려움이 많은 곳”이라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자 본연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조 스님은 “쌍계사는 국내 최초로 범패가 시작된 도량이다. 범패 전수를 위한 전문공간인 불교문화예술관 불사를 통해 쌍계사를 불교음악의 한 축을 이루는 도량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와 관할권 분쟁 중인 사천 다솔사에 대해서는 “종단의 여러 어른스님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조 스님은 前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과 1975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재적본사는 수원 용주사.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에게 견당했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던 시절, 성조 스님은 사회부장과 사서실장을 역임하면서 어른스님을 잘 모신다는 평이 자자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보조선 권위자 강단 떠난다 10일, 법산 스님 퇴임기념 학술대회

20여 년간 한국불교학 중흥에 힘쓴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의 퇴임을 기념해 아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 사진)은 12월 10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수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황순일 교수의 ‘초기 불교의 지관수행’ △차차서 교수의 ‘범화경’ 삼매의 종류와 특징 △우제선 교수의 ‘인도 후기 유가행파의 수행과 깨달음’ △정승석 교수의 ‘요가 철학에서 초능력의 수행론적 의의’ △인경 스님의 ‘초기 불교에 서의 자아개념’ 등 주제논문이 발표된다. 이나은 기자



“교계지 연대, 구독확장 힘쓰겠다” 일보신문 제5대 사장 동 봉 스님

일보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제5대 사장 동봉 스님(괴산 흥천사 주지·사진) 시대를 열었다. 신임 사장 동봉 스님은 11월 30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대회장에서 ‘일보신문사 창간 27주년 기념 및 제5대 임원진 취임식’에서 사장에 취임했다. 동봉 스님은 “최근 불교평화 등을 야기하고 있는 개신교만 해도 CBS 등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 언론은 부족한 수준이다. 불교계 언론간 연대를 강화해 교계 언론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면에서 계속

“돈 많은 율사가 어디 있나?”

문서포교·종단개혁 앞장서 온 설법연구원 대표 동 출 스님

“40살이 돼서 10번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3번 남았네요. 이 활동은 나의 약속이고, 대중과의 약속이면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죠. 우리(스님)는 항상 받기만 해요. 받는 것은 부담이고, 받은 만큼 줘야죠. 1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수행, 물질적 보시를 하든지 구체적인 행동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행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하거든요. 받을 것은 못 받아도 상관없지만, 줄 것은 줘야 해요. 인연 맺기는 쉬워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1970년대 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출가했다. 출가 후 정도회

를 통해 사회참여운동을 했다. 예코봇 다전신인 한국불교사회교육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정토회 월간지(정토) 주간 활동, 1990년대 중앙승가대 신문 제작을 하면서 승가와 재가가 함께 불교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불교는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 것이지,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역할은 다르지만, 출가자들이 재가자를 동반이라고 생각해야죠. 이 생각이 출가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스님은 문서포교에도 앞장서 왔다. 동출 스님은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로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불교지도자론> <불교설법전서>(전 10권) <전통 사찰총서>(전 21권) 을 펴내고, <만화

불교이야기>(전5권)으로 불교만화 활성화를 통해 대중포교를 이끌어왔다. 또 월간 <정토> 주간으로 문서포교와 인연을 맺은 후 설법연구원 소임을 맡아 월간 <설법>을 발행했다. 출가 후 스님의 관심은 오로지 ‘종단’이었다. 1994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1994년 개혁회의 홍보차장, 2005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를 통해 종단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스님은 “오로지 관심이 종단이었던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종단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뛰어왔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고,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고백했다.



제7회 불교활동과 지원금을 받은 이준업 호남불교문화원 실장(왼쪽)과 노귀남 불교포럼 실행위원장(오른쪽) 사진=박재완 기자

동출 스님은 “돈 많은 율사는 없다. 내 주머니만을 생각해 돈 주는 곳에 투계를 핵심이 무엇인가? 봉은사 지역사찰 전환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직업사찰 운영은 투명하지 않고, 수십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소유를 이야기 한다. 본질은 지적하지 않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이어 “기득권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스님들이 나라 정책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 총재 영공 도성 대선사 건당식 (비구·비구니)

- 세계선불교 지도자 찾아 범맥기행 -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파종 된지 2000여년 보우 국사님의 육조선맥 뿌리내려 어언 1400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 함께하기 보다는 기득을 지키고 배타하여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먼저하는 다수인에 의해 일불 제자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하나 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불제자들이 모여 선불교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시작을 2010년 9월 27일 부산 KBS홀에서 세속 96세이시고 대한선불교의 산 증인이며 세계선불교 지도자이신 영공 도성 큰스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을 출범하였습니다.

본 연맹 1차 목표인 불교를 국교로 하는 12-30개국과 함께 상호교류를 통해 선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연로를 함께하며 각국 선불교 대표 큰스님의 법을 공유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란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 중심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덕망 높으신 스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영공 도성 큰스님 제1회(傳法建幢) 건당식

• 중 사 : 경우 큰스님, 인왕 큰스님, 무진본 큰스님, 법왕 동산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조계종 원로위원), 무진장 큰스님(조계종 전교무원장) 외 본 연맹 장로단.

• 일 시 : 2010년 12월 28일 14:00시

• 장 소 : 부산 연제구 연산 8동 383-34번지 황정사 큰스님의 전법을 받으시고 성불 도생 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 광둥성 육조 혜능 대선사 (2011년 3월 20일 예정)

3. 태국 담마까이(법신사) 닷딤지도 대선사 (2011년 4월 21일 예정)

4. 캄보디아 왕사 땃퐁 대선사 (2011년 6월 예정)

5.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및 달라이라마, 기타 국 계획 중.

*상기 일정에 (일부 및 전체) 동참하실 대한불교 각 종단 지도자 스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법건당 법전, 기념책자, 가사(법계에 따라 17쪽 - 25쪽), 기타 준비 관계로 행사 1주일전 마감합니다. (사진 3장, 본 연맹 신청서 1부 비용 50만원)

사 단 법 인 세 계 선 불 교 문 화 교 류 연 맹

영공 도성 근본선불교 범맥잇기 추진 위원장 황정 합장 |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30번지 사무총장 김대식 전화 010-3501-3005, 053-767-8551 팩스 053-765-4814 / E-mail : koreakds@gmail.com / 입금계좌 농협 176277-51-004739